

더불어 민주당 정책위원회 2025.5.1.(목)	보도자료 담당: 정책위원회 연락처: (02)6788-2606
--	--

민주당 2025년 제1회 추경 국회심사 성과

지역화폐 발행지원 4천억원,

건설경기 진작 위한 SOC 8천억원 등 1조 5천억 증액 확보

- 민주당은 정부가 지난 4월 21일 국회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민주당은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의 증액을 위하여 추경심사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 그 결과, 오늘 국회에서 의결한 13.8조원 규모의 추경(정부안 12.2조원 대비 세출 1.8조 증액, 0.2조 감액으로 1.6조 순증)에서 민주당은 세출 증액 1.8조원에서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 4천억원, 건설경기 진작을 위한 SOC 예산 8천억원 등 민생회복, 경제성장, 국민안전 강화, 건설경기 진작 예산 1.5조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내었습니다.

□ 이번 추경에서 확보한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 4천억원은, 2024년 예산 3천억원보다 1천억원 증가한 규모이고 집행가능한 기간이 6개월임을 감안하면 가계지출 부담경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AI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위한 사업예산도 증액시켰습니다.

- 핵심광물과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핵심광물 비축확대 예산 153억원, 해외자원개발조사 예산 1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AI GPU·NPU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AI데이터센터 GPU임차 예산 88억원, 국산NPU 평가 및 서비스인프라 전환 예산 40억원을 증액시켰습니다.

- AI 인프라 확충도 중요하지만, AI 활용 산업의 양성도 중요하기에 AI 영상데이터 구축 예산 200억원, 인공지능 콘텐츠 제작지원 예산 165억원, AI 학습용 데이터개방체계 구축 예산 25억원, AI 텍스트데이터 구축제공 강화 예산 2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 이외 블록체인 활용기반 조성 예산 48억원, 전략기술 연구성과 사업화 예산 50억원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도 증액하였습니다.
- 갈수록 늘어나고 규모도 커져가고 있는 산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증액시켰습니다.
- 고정익비행기에 물탱크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 80억원, 야간진화를 지원하기 위해 산림청 헬기 열화상카메라 설치 예산 50억원, 산불이 나면 가장 먼저 인지하고 현장에서 초동대응하는 국립공원공단의 드론 등 산불진화장비 예산 15억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또한 전통사찰의 소방시설설치 예산도 20억원 증액하였습니다.
-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경제를 살리고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예산도 반영하였습니다.
- 산불피해지역과 항공기참사로 어려운 호남의 관광수요를 촉진하기 위해 이들 지역에 대한 숙박할인바우처 지원단가를 7만원 미만 숙소에 대해서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7만원 이상 숙소에 대해서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되도록 하였습니다(부대의견으로 기금변경 명시).
 - 산불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농기계 대부분이 전소되어서, 임대농기계 구입을 지원하는 예산을 24억원 반영하였습니다.
- 싱크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건설 지하 안전관리 예산 30억원, 지하시설물 전산화 예산 12억원을 증액하는 한편, 요금이 저렴한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 신설 예산 7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침체로 임금체불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체불임금 대지급금 예산도 690억원 증액시켰습니다.

- 건설경기를 진작하기 위한 SOC 예산 8천억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비아파트 신축 매입임대 5만호 증가 예산 3천억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물량 5만호 증가 예산 2천억원, 고속일반철도 안전 및 시설 개량 지원 예산 1천억원, 국도 내 방호시설·안전시설물 확충 예산 1천억원, 국가기간망 철도구간 구축(평택-오송 2복선화) 예산 1천억원 증액이 반영되었습니다.
- 이번 추경심사 과정에서 검찰청과 감사원 등의 특정업무경비가 증액되었는데, 민주당은 이에 대해 투명한 집행과 충분한 증빙을 전제로 증액한 것임을 분명히 해둡니다. 정부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국회심사 과정에서 추경규모가 1.6조원 증액되었지만, 민주당은 이번 추경으로는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에 많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이에 향후 특단의 추가대책이 필요하며 이를 적극 추진할 것을 밝힙니다.

2025. 5. 1.

더불어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진성준,
예산결산정책조정위원장 허영**